

신호철 대표 “‘설명 가능한 AI’ 통해 투자 진입장벽 낮출 것”

카카오페이증권 간담회

신 대표, 새로운 투자 문화 강조
美 투자자, K-주식 접근성 개선
IPO 기반 LP·S&T 사업 확대

“좋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AI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AI가 더 중요합니다.”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가 AI를 앞세운 증권사의 미래 청사진을 내놔다. AI를 통해 국민의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미국 개인투자자에게 한국 주식 투자 길을 열어주는 한편, 결혼과 출산, 취업 등 인생의 주요 순간마다 주식을 선물하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자 확대부터 글로벌 진출, 생애 주기 금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전략이다.

◆ 투자 판단 돕는 투자에이전트 공개

신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제대로 투자하고 자산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고 무섭고 혼자라고 느끼기 때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를 위해 개인 맞춤형 AI 투자에이전트를 선보인다. 단순히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AI가 아니라 투자자의 성향과 자산 상황을 이해하고 금융교육과 투자 판단을 돕는 AI를 지향한다.

신 대표는 “투자의 판단과 결정은 결국 고객이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투자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편이 아니라 고객 편에서 위험과 기대수익을 설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 서비스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AI가 왜 그런 답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연말에는 일부 투자에이전트 기능을 공개하고,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리서치 조직 운영 방식도 기존 증권사와 다르게 가져간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리서치팀을 AI서비스센터 산하에 두고 있다. 신 대표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제대로 큐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기업을 분석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로 향하는 K-주식…IPO·생애주기 투자까지 사업 확장

AI 전략은 해외 사업과 기업금융(IB) 확대에도 연결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시버트파이낸셜과 함께 미국 개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 주문 연결을 넘어 콘텐츠와 투자 커뮤니티를 함께 제공하는 ‘K-주식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목표다.

신 대표는 “현재 양자 실무진이 매주 콘퍼런스콜을 하며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미국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활용한 24시간 거래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외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카카오페

이증권은 IPO 주관 업무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ETF 유동성공급자(LP)와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신 대표는 “리테일과 가장 시너지가 큰 영역”이라며 “스타트업 투자부터 IPO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주식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공개했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최대 10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데 이어, 내년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도 10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 주식을 선물하면 투자의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생애 첫 주식이 가장 좋은 금융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식을 지급하면 연간 약 200억원이 들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입학과 취업 등 인생의 주요 순간마다 주식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박현주 “코빗, 미래에셋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전략가)

미래에셋, 코빗 인수 마무리 단계 ‘지능형 투자 플랫폼’ 청사진 제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사진)가 코빗을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사업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3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박 GSO는 코빗의 새 브랜드 ‘디지털X(Digital X)’ 출범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코빗은 오늘 디지털X라는 이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며 “미래에셋 3.0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함께 구현해 나갈 공동의 항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X’는 미지의 미래이자 서로 다른 가치가 교차하고 융합할 때 만들어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미래에셋의 노하우와 코빗의 전문성을 결합해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GSO는 디지털X를 미래에셋 3.0을 구현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와 토큰증권(STO), 스테이블 코인,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에셋이 축적한 30여년의 글로벌 헤리티지와 코빗의 전문성을 결합해 디지털자산의 다음 시대를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투자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지식과 정보, 통찰력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지능형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국내외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직접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신뢰와 내부통제도 거듭 강조했다. 박 GSO는 “컴플라이언스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정보보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장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상품은 미래에셋의 이름을 걸었다더라도 결코 세상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고객 자산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왔다. 코빗은 이날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난 22일 코빗 지분 91.7%를 확보한 데 이어 24일 나머지 5.42%를 추가 취득해 총 97.15%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증권가 “삼양식품 주가, 실적 비해 저평가”

2분기 역대최대 실적 가능성
한투·유안타·키움 등 매수 의견

삼양식품 주가가 견고한 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삼양식품 주가는 고점대비 30% 넘게 떨어졌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한 1천755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실적이 50%가량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파른 외연 확장 기조 속에서 인건비가 매출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 일회성 요인도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조정받겠지만 23%를 하단으로 선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밀양 2공장 생산량이 계획대로 올라오면서 2분기 생산량은 10% 확대됐고 연말 중국 자싱 공장 증설 전까지 추가 가동 시간 확대로 출하는 매 분기 늘어날 것”이라며 “3분기 미국에서는 일부 이연된 매출도 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7년 예상 P

ER이 14~16배인 일본 동종 기업들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기회”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5만원을 모두 유지했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2027년 중국 공장 가동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0만원을 유지했다.

DS투자증권도 삼양식품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0만원을 유지하며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다.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5만원을 제시하며 2분기 실적 매출액 7659억원, 영업이익 178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상반기 국내 펀드 이익배당금 40조 돌파

전년대비 70%↑… 재투자율 67%

올해 상반기 국내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이 4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지급된 배당금의 67%는 다시 같은 펀드에 재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40조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3조4699억원)보다 70.4%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6조793억 원으로 63.1%, 사모펀드는 33조9216억원으로 71.8% 각각 늘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는 공모 1680개, 사모 9225개로 집계됐다.

지급된 이익배당금 가운데 26조7961억 원은 해당 펀드에 재투자됐다. 전체 재투자율은 67.0%였으며 공모펀드는 94.3%, 사모펀드는 62.1%를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자가 어려운 부동산·특별자산형 펀드 비중이 높아 공모펀드보다 재투자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펀드 신규 설정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신규 설정액은 49조2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다. 공모펀드는 4조6333억원으로 97.1% 급증했고 사

〈2026년 상반기 이익배당금 지급 현황〉

구분	공모	사모
MMF	18,492	12,972
주식·주식혼합	20,713	68,798
채권·채권혼합	12,645	12,087
부동산·특별자산	778	74,196
기타	8,165	171,163

단위 : 억원

/한국예탁결제원

모펀드는 44조5958억원으로 26.9% 증가했다. 신규 설정된 펀드는 공모 151개, 사모 1547개였다.

청산분배금 지급액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청산분배금은 27조50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 늘었다. 공모펀드는 6463억원으로 8.0% 감소했지만 사모펀드는 26조8581억원으로 25.1% 증가했다. 청산분배금을 지급한 펀드는 공모 156개, 사모 1151개로 각각 13.0%, 45.1%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통계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발행 등록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형 펀드를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ETF와 외화표시 수익증권, 모펀드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IRP 1년 수익률 55%… 업계 1위

하나증권은 올해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하나증권 개인형 IRP 원리금비보장형의 1년 수익률은 54.91%, 3년 수익률은 23.33%로 집계됐다. 1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3개 분기 연속 증권업계 1위

를 기록했다.

장기 수익률에서도 상위권 성과를 보였다. 하나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의 10년 수익률 9.55%, 확정급여형(DB) 원리금비보장형의 10년 수익률 7.03%를 기록해 각각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허정윤 기자